

#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 연구

곽홍린\*

|| 차례 ||

- 1. 서론
- 2.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방법
- 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특성 및 현황
- 4. 연구의 결과 및 분석
-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지도와 아동양육지도를 하고 있는 방문지도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도사의 활동 특성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방문지도사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권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의 연령, 학력, 경력, 지도사 교육 정도, 연수교육기간, 주요활동 내역, 재교육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다문화가족의 반응, 선호도, 기피도, 방문지도에 대한 자가인지도, 추후활동계획 여부 등을 바탕으로 그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방문지도에 대한 자가인지와 열정은 매우 높았지만, 전문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지도사들의 연수교육환경과 사회적 지지 또한 매우 열악해 지도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에 대한 필요성 인지는 물론 재교육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갖고 있어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의 문제를 다소나마 진단하여 보았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연구가 앞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가정, 결혼이주여성, 방문지도, 방문지도사, 한국어지도, 아동 양육지도

## 1. 서론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일컬어지던 한국사회는 오늘날 다민족, 다인종국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동은 경제·사회적 역동 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를 풍성하게 하고,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구촌화에서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세계의 국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이주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주의 자유는 한국인에게도 결혼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더불어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sup>1)</sup>을 증가하게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5월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 6). 특히 2008년 5월, 결혼이민자는 2007년도에 비해 13.9% 증가하여 144,415명으로 늘어났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6년에 25,000명, 2009년에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행정안전부, 2008).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추세는 한국사회

1) 국제결혼에 대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intermarriage, interracial, marriage, intercultural marriage, exogamy’ 등이 있다. 최근 국제결혼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라는 용어 외에도 인종 간 결혼, 다문화결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관심을 둔다.

내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공중과 방송사에서도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상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 문제, 학업의 문제, 또래와의 관계에 따른 문제 등이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국제결혼으로 증가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서 이 연구는 시작된다.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이주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져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오성배, 2005, 2006.) 이렇듯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양질의 보살핌을 주기 어렵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시기에는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바램은 있어도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가 입학하게 되면 자신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 부족과 장벽은 모든 사회적인 지지망과 자원, 그리고 정보로부터 이들을 고립되게 한다<sup>2)</sup>.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들의 언어능력에 관해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언어는 연령과 환경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3)</sup>. 즉 학령기 아동의 언어적 환경은 제1차 환경인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 교사, 다른 지역 사회에서 경험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학령기 이전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에는 부모,

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9, 64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데, 가깝게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언어장벽은 모든 사회적인 지지망과 자원, 그리고 정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고 밝혔다.

3) 곽홍란, 「동화·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 연구-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09, 4쪽.

특히 어머니가 언어적 환경의 주된 영향요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만2세까지의 영아기 동안 눈부신 언어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문화 경험이 부족한 어머니로 인해 일반가정 자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언어발달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보일 수 있다(오성배, 2005, 2006).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환경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지도와 아동양육을 지도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방문지도사들의 활동 특성 및 현황에 대해 파악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방문지도사가 체감하는 문제의 진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제2언어습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실태 및 문제해결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배경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 1)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들의 활동 특성과 요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경상북도 중부지역 의성·예천·군위·영천 지역의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경상북도 관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이며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면, 동 단위 형태가 다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지도사·아동양육지도사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sup>4)</sup> 이를 위해 먼저 경상북도 중부지역인 의성·예천·군위·영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5)</sup> 설문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과 지도사 활동 상황 및 기능에 관한 질문, 한국어교육 수업현황 및 방식,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지도사의 인식과 활용도 등이 포함된 26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였다<sup>6)</sup>.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논제와 연관이 있는 방문지도사의 연령, 학력, 경력, 지도사 교육, 교육 기간, 주요활동, 재교육의 필요성, 재교육에 대한 요구, 다문화가정 가족의 반응, 선호도, 기피도, 1인당 지도 인원 수, 주당 한국어지도 시간, 방문 지도 필요성의 자가인지도, 추후 활동 계획 여부 등의 설문을 대상으로 하

4) 2008년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성군은 한 해 동안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인구현황에서 광역시와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에서 의성, 예천 지역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열거한 지역은 경상북도 내 광역시와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6) 설문조사 문항 구성은 장미숙(2005)과 김미경(2009)의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 조사 결과에서 연구자가 실시한 설문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여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차 조사는 2008년 1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북 의성군에서 방문지도사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08년 10월 14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경북 군위군에서 방문지도사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하였으며, 3차 조사는 2009년 2월 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방문지도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따른 취지를 설명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성토록 의뢰 후 수거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먼저 설문도구에 대한 변인에 따라 ‘과제의 빈도’,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난이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계수와 타당도-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계수는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사전설문조사 문항 신뢰도

| 구분      | 문항수 |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
|---------|-----|-------------------------------|
| 과제의 빈도  | 26  | .934                          |
| 과제의 중요도 | 26  | .896                          |
| 과제의 난이도 | 26  | .935                          |

<표 1>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사전설문조사 문항에 따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과제의 빈도 Cronbach's  $\alpha$  계수 .934, 과제의 중요도 Cronbach's  $\alpha$  계수 .896, 과제의 난이도 Cronbach's  $\alpha$  계수 .935로 나타났다. 본 도구를 대상으로 검사한 내용 타당도는 아래 <표 2>와 같았다.

〈표 2〉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사전설문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 구분      | 문항수 |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
|---------|-----|------------------------------|
| 과제의 빈도  | 26  | .80                          |
| 과제의 중요도 | 26  | .98                          |
| 과제의 난이도 | 26  | .81                          |

본 연구의 적용에 앞서 실험을 위해 설계된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2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목표 과제를 위해 개발된 검사문항이 목표과제 선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항별 적합도를 이용하여 검사 전체의 내용타당도의 하위요인을 과제의 빈도, 중요도, 난이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자료의 타당도-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계수는 다음과 같다. 과제의 빈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 .80,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 .98,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 .81로 나타나 연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였다.

### 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윤리적 문제에 의거하여 응답자가 사적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목적 및 결과 사용처,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응답자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 제공을 하였다.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연령 및 학력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실태 및 문제해결방안 고찰에 앞서 지도사의 연령 및 학력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설문자료에 따른 분석내용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연령 및 학력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지도사의<br>연령 | 20대    | 0  | 0.00  | 지도사의<br>학력 | 고졸   | 22 | 30.98 |
|            | 30대    | 14 | 19.72 |            | 전문대졸 | 35 | 49.30 |
|            | 40대    | 41 | 57.75 |            | 대졸   | 9  | 12.68 |
|            | 50대    | 16 | 22.53 |            | 대학원졸 | 0  | 0     |
|            | 60대 이상 | 0  | 0.00  |            | 기타   | 5  | 7.04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71 | 100   |

경상북도 의성·예천·군위, 영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범주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0대’가 41명으로 57.75%, ‘50대’는 16명으로 22.53%, ‘30대’는 14명으로 19.7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대’와 ‘60대 이상’의 지도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전문성과 전공 관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과 전공 관련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지도사의 학력 문항에서는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 ‘기타’의 범주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 졸업자’가 35명으로 전체 지도사의 49.3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22명으로 30.98%, ‘대학교 졸업자’가 9명으로 ‘12.68%’, ‘기타’가 5명으로 7.04%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공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들에게는 ( )속에 전공을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학력소지자에게도 ( )속에 내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들의 전공은 사회복지(21), 아동학(6), 유아교육(2), 간호학(1) 무응답(5)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사회복지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대졸’ 학력소지자들의 전공은 교육학(2), 가정학(2), 국문학(1), 원예학(1), 국사학(1), 무응답(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학력소지자로 응답한 지도사들은 현재 전문대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경력 및 사전 교육 경력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경력 및 사전 교육 유무에 대해 조사한 설문자료의 분석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4>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경력 및 사전교육경력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지도사<br>활동 경력 | 1년 미만 | 62 | 87.32 | 지도사<br>교육 경력<br>유무 | 없다 | 20 | 28.17 |
|              | 2년 미만 | 9  | 12.68 |                    | 있다 | 51 | 71.83 |
|              | 2년 이상 | 0  | 0     |                    | 합계 | 71 | 100   |
|              | 합계    | 71 | 100   |                    |    |    |       |

다문화가정 방문 지도사들의 활동경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는 ‘1년 미만’과 ‘2년 미만’, ‘2년 이상’의 범주를 두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는 62명으로 87.3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년 미만’의 경력을 지녔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으로 12.6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지도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경력 유무의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51명으로 71.83%를 차지했다. 그러나

방문지도에 따른 사전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지도사 또한 20명으로 28.17%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연수교육기간 및 주요 활동내용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에 따른 연수 교육 기간과 현재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지도사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자료 분석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연수교육기간 및 현재 주요활동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 지도사 연수교육기간 | 1개월     | 35 | 49.29  | 지도사 주요활동내용 (복수응답 가능) | 생활지도  | 18 | 22.22  |
|            | 3개월     | 32 | 45.07  |                      | 말벗    | 11 | 13.58  |
|            | 6개월     | 2  | 2.82   |                      | 한국어지도 | 31 | 38.27  |
|            | 12개월    | 2  | 2.82   |                      | 아동양육  | 19 | 23.46  |
|            | 13개월 이상 | 0  | 0.00   |                      | 기타    | 2  | 2.47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81 | 100    |

방문지도사들의 지도사 연수 교육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3개월 이상’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1개월’ 정도의 연수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지도사가 35명으로 49.2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3개월’ 정도의 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45.07%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6개월’과 ‘12개월’ 정도 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으로 2.8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지도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방문지도사들의 연수교육 기간과 연계하여 연수교육 관련 내용을 자유

롭게 기재하게 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교육은 각 시군의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1개월~3개월의 단기간에 걸쳐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의 일상과 관련된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표5>에서와 같이 연수한 방문지도사들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지도’, ‘말벗’, ‘한국어지도’, ‘아동양육’, ‘기타’ 등 5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복수응답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문지도사들의 활동 가운데 ‘한국어지도’에 응답한 수는 31명으로 38.27%로 나타났으며, 이어 ‘아동양육’ 활동 응답자는 19명으로 23.46%, ‘생활지도’에는 18명으로 22.22%의 응답, ‘말벗’에 응답한 수는 11명으로 13.58%를 보였다. ‘기타’에 응답한 수는 2명으로 2.47%로 나타났다.

#### 4)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재교육 필요성 및 요구 내용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에게 활동에 따른 재교육의 필요성과 지도사를 위한 재교육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항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질문한 내용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재교육 필요성 및 요구 내용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지도사 재교육 필요성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 1.41  | 재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 (복수응답 가능) | 한국어 교육  | 22  | 17.46 |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  | 5.63  |                         | 상담교육    | 19  | 15.08 |
|             | 보통이다        | 3  | 4.23  |                         | 자녀학습 지도 | 15  | 11.91 |
|             | 대체로 필요하다    | 23 | 32.39 |                         | 의사소통 기술 | 42  | 33.33 |
|             | 매우 필요하다     | 40 | 56.34 |                         | 기타      | 28  | 22.22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126 | 100   |

방문지도사들에게 지도사 활동에 따른 재교육의 필요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5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등으로 구분한 하위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 가운데 재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지도사가 1명인데 반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40명으로 56.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재교육의 필요성을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23명으로 32.3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는 3명으로 4.23%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도 4명으로 4.35%로 나타났다. 방문지도사들 가운데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92.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지도사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하위범주를 ‘한국어교육’, ‘상담교육’, ‘자녀학습지도’, ‘의사소통기술’, ‘기타’의 5개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복수응답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응답 시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기술’이라고 응답한 수는 42명으로 33.33%로 나타났으며, ‘기타’라고 응답한 수는 28명으로 22.2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내용으로는 ‘성교육’, ‘부부교육’, ‘예절교육’, ‘가정교육’, ‘문화교육’ 등을 다양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응답한 수는 22명으로 17.4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상담교육’ 응답자는 19명으로 15.08%의 비율을 보였고, ‘자녀학습지도’에 따른 재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수는 15명으로 11.91%의 비율로 나타났다.

##### 5) 방문지도사 활동에 대한 가족반응 및 선호도와 기피도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의 활동에 대해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느끼는 반응과 방문에 따른 선호도와 기피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하위범주는 ‘매우 싫어한다’, ‘대체로 싫어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와 같이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다문화가정 지도사 방문에 대한 가족의 반응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다문화 가정 지도사<br>방문에 대한 가족의 반응 | 매우 싫어한다  | 4  | 5.63  |
|                             | 대체로 싫어한다 | 2  | 2.82  |
|                             | 보통이다     | 8  | 11.27 |
|                             | 대체로 좋아한다 | 17 | 23.94 |
|                             | 매우 좋아한다  | 40 | 56.34 |
|                             | 합계       | 71 | 100   |

방문지도사들이 인지하는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반응 설문조사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좋아한다’의 경우 40명으로 56.34%의 비율을 보였으며, ‘대체로 좋아한다’는 17명으로 23.94%의 비율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에서는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대체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싫어한다’의 경우 4명으로 5.6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싫어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2.8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반응을 선호도와 기피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표 8〉 다문화가정 지도사 방문에 대한 가족의 선호도와 기피도

| 변수         | 범주  | 빈도(명)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명) | 비율(%) |
|------------|-----|-------|-------|-------------|-----|-------|-------|
| 지도사 방문 선호도 | 없다  | 0     | 0.00  | 지도사 방문의 기피도 | 없다  | 24    | 33.80 |
|            | 본인  | 25    | 35.21 |             | 본인  | 4     | 5.63  |
|            | 남편  | 14    | 19.72 |             | 남편  | 9     | 12.68 |
|            | 자녀들 | 31    | 43.66 |             | 자녀들 | 1     | 1.41  |
|            | 기타  | 1     | 1.41  |             | 기타  | 33    | 46.48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71    | 100   |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의 하위범주에는 ‘없다’, ‘본인’, ‘남편’, ‘자녀들’, ‘기타’로 구성된 5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기타’ 응답자에게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의 방문을 선호도가 높은 가족은 ‘자녀들’이라고 응답한 수는 31명으로 43.6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본인’이라고 응답한 수는 25명으로 35.21%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남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명으로 19.72%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응답한 수는 1명으로 1.41%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 따른 내용 기술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선호하는 ‘기타’의 가족은 결혼이주여성, 본인, 자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부재에 의한 소통의 창으로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기피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 항목에서는 앞서 선호도에서도 같은 5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하위범주 응답 시에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지도사의 방문의 기피도 조사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지도사의 방문을 기피하는 사람으로 ‘기타’의 범주가 33명으로 46.48%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기피하는 사람이 ‘없다’의 범주가 24명으로 33.80%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기피하는 사람으로 ‘남편’이라는 응답자가 9명으로 12.68%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본인’이라는 경우도 4명으로 5.63%의 비율을 보였다.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기피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타’의 범주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본인과, 남편,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즉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타’ 가족들은 낮이 선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대체로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가운데서도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 6)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인원수와 주당 지도 시간

다문화가정 방문 지도사들의 한국어지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인당 방문지도하는 인원수와 주당 한국어를 지도하는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인원수와 주당 지도 시간

| 변수                     | 범주     | 빈도(명)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명) | 비율(%) |
|------------------------|--------|-------|-------|-------------------|-----|-------|-------|
| 한국어 지도<br>결혼이주<br>여성 수 | 1-2명   | 20    | 28.16 | 주당<br>한국어<br>지도시간 | 1시간 | 24    | 33.80 |
|                        | 3-4명   | 41    | 57.75 |                   | 2시간 | 47    | 66.20 |
|                        | 5-6명   | 3     | 4.23  |                   | 3시간 | 0     | 0.00  |
|                        | 9-8명   | 1     | 1.41  |                   | 4시간 | 0     | 0.00  |
|                        | 10명 이상 | 6     | 8.45  |                   | 기타  | 0     | 0.00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71    | 100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지는 방문지도사의 한국어지도 인원수에 대한 문항에서는 하위범주를 ‘1-2명’, ‘3-4명’, ‘5-6명’, ‘9-8명’, ‘10명 이상’과 같이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도사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방문지도사들이 한국어를 지도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았다. ‘3-4명’ 정도를 지도하는 경우가 41명으로 57.7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1-2명’ 정도를 지도하는 경우는 20명으로 28.16%의 비율을 보였다. ‘5-6명’ 정도를 지도하는 경우는 3명으로 4.23%, ‘9-8명’을 지도하는 경우의 응답수는 1명으로 1.41%의 비율로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10명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가 6명으로 8.4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주1회 한국어를 지도하는 시간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하위범주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타’로 구성된 5개 영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시간’ 가장 지도한다고 응답한 수가 47명으로 66.20%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1시간’ 가장 지도하는 수는 24명으로 33.80%를 보였으며 ‘2시간’ 이상 지도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7)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자가인지 및 추후 활동 여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방문지도의 필요성과 추후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인 지도 조사를 하였다. 빈도와 비율을 아래 <표 9>와 같이 나타냈다.

<표 10>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자가인지도 및 추후 활동 여부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변수               | 범주         | 빈도 | 비율(%) |
|---------------------|-------------|----|-------|------------------|------------|----|-------|
| 지도사 방문 지도 필요성 자가 인지 | 전혀 도움 안 된다  | 0  | 0.00  | 지도사 방문지도 추후활동 여부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00  |
|                     | 대체로 도움 안 된다 | 1  | 1.41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  | 2.82  |
|                     | 보통이다        | 8  | 11.27 |                  | 보통이다       | 13 | 18.31 |
|                     | 대체로 도움된다    | 25 | 35.21 |                  | 대체로 그렇다    | 25 | 35.21 |
|                     | 매우 도움된다     | 37 | 52.11 |                  | 매우 그렇다     | 31 | 43.66 |
|                     | 합계          | 71 | 100   |                  | 합계         | 71 | 100   |

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자가인지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5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와 같이 범주를 구분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방문지도사들의 자가인지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의 응답수가 37명으로 절반이 넘는 52.11%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도움이 된다’의 응답수는 25명인 35.21%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수는 8명인 11.27%,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에 응답한 지도사는 1명으로 1.41%로 나타났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에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추후활동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범주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범주는 ‘매우 그렇다’가 31명으로 43.6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수는 25명으로 35.21%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보통이다’의 응답은 13명으로 18.31%,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2명으로 2.82%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지도사는 없었다.

#### 4. 연구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상북도 의성·예천·군위, 영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연령대는 40대가 59.95%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도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49.30%, ‘고졸’ 30.98%, ‘대학졸’ 12.68%, ‘기타’ 7.04%의 비율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경력은 ‘1년 미만’이 87.32%로 나타나 비교적 활동 경력은 1년 남짓한 지도사가 많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연수교육기간은 1개월-3개월 정도를 받은 지도사가 94.36%의 비율을 보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한국어지도, 아동양육, 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활동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도사의 88.73%가 절감하고 있었으며, 재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으로는 의사소통기술, 한국어교육, 자녀학습지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서는 성교육, 부부교육, 예절교육, 가정교육, 문화교육 등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반응은 80.28%가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선호하는 가족으로는 자녀들이 가장 반겼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남편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기피하는 가족으로는 ‘기타’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기타’ 항목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은 방문지도사의 방문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지도하는 인원은 ‘3-4명’인 경우가 57.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명’을 지도하는 경우가 28.17%를 차지했다. 1주당 한국어지도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가 체감하는 방문지도의 필요성 유무에 따른 자가인지를 살펴본 결과 지도사의 87.3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방문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추후 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87%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한국어지도와 아동양육지도를 도와주고, 사회와 가족의 문화차이를 줄이고, 사회와 가족의 수용적인 태도를 위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따른 방

문지도사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한 이주자의 적응 지지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즉 주류사회구성원과의 접촉의 질과 양(Furnham and Bochner, 1986<sup>7)</sup>; Ward and Kennedy, 1993<sup>8)</sup>; Ward and Rana-Deuba, 2000<sup>9)</sup>, 현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Mendenhall and Oddou, 1985)<sup>10)</sup>, 가족, 이웃, 친구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망(Fontain, 1986), 그리고 보다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나 집단원조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클럽 등(Fontain, 1986)<sup>11)</sup>이 지지체계로서 이주자가 생활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고 본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다른 나라의 이주자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은 매우 다르다.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이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어머니가 되어 자녀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다중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 내의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개입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문지도들의 활동은 비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Furnham, A. and S. Bochner,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London: Methuen.

8) Ward, C. and A. Kennedy.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149-149.

9) Ward, C. and A. Rana-Deuba. 2000. "Home and host culture influences of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291-306.

10) Mendenhall, M. and G. Oddou. 1985. "The dimensions of expatriate acculturation: A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39-49.

11) Fontain, G. 1986. "Roles of social support systems in overseas relocation: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0: 361-398.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와 한국어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들을 보살피주어야 하는 봉사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자녀교육, 생활상담, 가정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방문지도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둘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교육은 검증된 교육과정과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방문지도사들의 활동은 대부분 1개월~3개월 정도의 피상적인 연수교육만 이수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방문지도사들을 위한 재교육은 공인된 교육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문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생활지도, 자녀학습지도, 부부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문지도사 교육이 시·군단위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방문지도사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의무교육, 열린 교육이어야 한다. 방문지도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문지도사들의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방문의 ‘선호도’와 ‘기피도’ 조사를 살펴보면 ‘어린이’와 ‘결혼이주여성’은 방문을

선호하지만, ‘그 외 가족’들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물며 ‘결혼이주여성’과 ‘남편’ 가운데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조한다면 다문화가정 교육은 방문지도를 통한 단편교육에서 벗어나, 서서히 공교육을 통한 열린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미래 한국을 위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양지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고뇌가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과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 그리고 방문지도사의 활동 체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타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상북도 중부지역 의성·예천·군위·영천 지역에서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지도사들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08년 1월 5일에서 2009년 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영역분석을 위해 빈도와 비율을 산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과 방문지도사 활동경력, 연수교육경력, 주요활동, 재교육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다문화가정 가족의 반응, 선호도, 기피도, 1인당 지도 인원 수, 주당 한국어지도 시

간, 방문지도의 필요성과 자가인지도, 추후활동계획 여부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연령대는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도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고졸 지도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경력은 1년 미만의 지도사가 87.32%로 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연수교육기간은 1개월-3개월 정도를 받은 지도사가 93.62%의 비율을 보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한국어지도, 아동양육, 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활동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도사의 88.73%가 절감하고 있었으며, 재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으로는 의사소통기술, 한국어교육, 자녀학습지도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서는 성교육, 부부교육, 예절교육, 가정교육, 문화교육 등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방문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반응은 80.28%가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사의 방문을 자녀들이 가장 반겼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남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족들은 지도사의 방문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지도하는 인원은 3-4명을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명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았다. 1주당 한국어지도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가 체감하는 방문지도의 필요성 유무에 따른 자가인지를 살펴본 결과 지도사의 87.3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추후 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78.87%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해 방문지도사들의 자긍심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 결혼이주여성의 제2

언어인 한국어교육 방안모색,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의 긍정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와 한국어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지도는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교육은 검증된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방문지도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공인된 교육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은 방문지도라는 닫힌교육에서 벗어나 의무교육, 열린교육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특성과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방문지도하는 지도사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한 연구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에 대해 선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방문지도와 그들이 한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법무부,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미래』,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사회이해』전문과정, 법무부, 2009, 1쪽.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8년 <http://www.moleg.go.kr> 통계월보에서 2008년 14월 2일 인출.
-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년 10월 19일 인출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인구여성정책팀, 『결혼이주여성 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 보건복지부 주관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국정감사자료, 2006.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서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29쪽.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2008. 10. 30, 보고자료』.
-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지방행정국(자치행정과)』, 2008. 8. 9. 보도자료.

### 2. 논문자료

- 강응숙, 『비고츠키의 사고 및 언어발달이론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36-39쪽
- 곽홍란, 『동화·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 연구-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5쪽.
- 구치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1-64쪽.
-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2-53쪽

### 3. 단행본

- 강성화·김경희, 『영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동문사, 2008.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쪽.

- \_\_\_\_\_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 연구*. 16(4), 139-159쪽.
- 최미숙·김경숙·윤현숙,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19(2), 2008, 65-99쪽.
- Fontain, G. 1986. “Roles of social support systems in overseas relocation: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0: 361-398.
- Furnham, A. and S. Bochner,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London: Methuen.
- Mendenhall, M. and G. Oddou. 1985. “The dimensions of expatriate acculturation: A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39-49.
- Ward, C. and A. Kennedy.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 147-149.
- Ward, C. and A. Rana-Deuba. 2000. “Home and host culture influences of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291-306.
- Wood, D. J. Bruner, J. S. & Ross, G. (1996),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ologym* 19, 89-100.

Abstract

## A Study on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Present Condition of Visiting Tutors

Kwak, Hong-ran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recognize the roles of visiting tutors instructing Korean language and offspring-raising for immigrant women for marriages and their offspring in making visits in person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ies, and, going one step forward, is to more specifically inquire into their working realities and the methods for solving problems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ies.

In this research, the author diagnoses the realities based on the age,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careers, the degree of training of tutors, the period of training, the main activity history, the need of retraining, the demands, the repon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eference, the degree of evasion, the degree of self recognition for visiting tutoring,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urther activation plans of visiting tu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ough the roles of visiting tu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great, they were in very poor surroundings. Self recognition and enthusiasm were very high while specialties were very low. Training situations and social backup for tutors are also very poor and this makes tutors have hard times in their teaching. Tutors, however, feel keenly the necessities of visiting tutor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y have constant working plans to see hopes.

The author diagnoses the problems of visiting tutoring from the research up to now. The author hopes this research can sow grope for the resonable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offspring and the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future.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y,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immigrant woman for marriage, visiting tutoring, visiting tutor, Korean, language teaching, child raising guidance

곽홍란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 (706-210)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451번지

전화번호 : 010-4664-7994

전자우편 : 777khr@hanmail.net

|                                                                                       |
|---------------------------------------------------------------------------------------|
| <p>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br/>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br/>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p> |
|---------------------------------------------------------------------------------------|